Q 낙동강선에서 38선까지의 반격작전 과정은?

A 유엔군사령부가인천상륙작전을시도했던목적은궁극적으로 북한군을협공해궤멸시키는데 있었다. 이를위해 유엔군사령부의상륙작전계획과맞추어미 제8군사령부가반격작전계획을수립해 유엔군사령부의승인을받은 시기는9월 6일 이었다. 이와같이 미 제8군은 북한군의9월 공세로낙동강방어선전투에여념이없는 가운데도반격작전을위한준비는차근차근갖추고있었다.

반격작전계획

낙동강선에서 전개하는 반격작전의 개념은 미 제8군이 현 접촉선을 공격개시선으로 주공을 대구 - 대전 - 수원 축선에 두고 공격하는 것이었다. 작전 시기는 인천상륙작전 하루 뒤인 9월 16일에 공격을 시작하는 것이었으며, 이어서 지대내의 북한군을 격멸하는 동시에 인천으로 상륙한 미 제10군단과 신속히 연결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 제8군은 서부 및 서남부지역에서 미 제1군단 예하 4개 사단이, 동부지역에서는 한국군 2개 군단이 일제히 반격을 개시하도록 했으며, 주공은 중앙지역의 미 제1기병사단에 부여했다. 그 부대가 미 제10군단과 연결 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경부국도의 양호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어 기계화부대의 운용에 유리하고 보급지원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반격작전 실시

낙동강방어선에서 역사적인 반격작전은 계획대로 1950년 9월 16일에 시작되었다. 반격작전의 주공을 담당한 미 제1기병사단이 선두에서 북한군 방어선 돌파를 시도했다.

중부지역에서는 국군 제6사단이 신령에서, 제8사단이 영천에서, 동부지역에서는 국군 수도사단이 안강 남쪽에서, 제3사단이 포항 남쪽에서 각각 반격작전으로 전환했다.

유엔사령부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면 북한군이 급속히 와해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이 의외로 강해 작전 초기에는 어떤 지점에서도 돌파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오히려 곳곳에서 적의 공격을 받아 반격부대의 후방이 차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돌파구가 형성되고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북한군의 저항은 급격히 저하되었다. 9월 16일부터 2주간의 전격적인 작전으로 그들은 조직이 와해되면서 분산 후퇴했다.

북한군 전선사령관과 참모들은 김천에서 철의 삼각지대로 도주했다. 또한 그들의 제1군단사령부는 조치원에서 해체되었고 제2군단사령부는 김화로 황급히 철수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패잔병들이 지리산과 태백산일대로 잠입해 게릴라로 전환됐다.

생각해 봅시다!!

1. 국군과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으로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렬했던 원인은 무엇인가?
2.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작전 후 북한군 패잔병들은 어떻게 되었나?